1977년, 지금의 제2법학관 자리에 삼의원이 세워졌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고마웠어 삼의원 넌 내 대학생활의 안식처였어"

40여 년의 시간을 함께한 삼의원이 오는 2학기부터 지역과 학생을 아우르는 창업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신문은 과거 삼의원에 거주했던 가상 인물을 아버지로 설정해 삼의원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r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아버지, 오늘도 학교 뒤 샛길을 걷다가 이 붉은 담장 앞에 섭니다. 40년 넘게 삼의원은 학생들의 보금자리로 되어 왔다지요. 길고양이만 오가는 텅 빈 삼의원은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곳에서 쌓으셨던 추억만큼 새로운 이야기들이 곧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삼의원은 곧 학생들의 상상과 도전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삼의원이 기숙사로 문을 열고 처음 이 철문으로 학생들이 오가던 날, 그날도 오늘처럼 설레는 날이었을까요.

교정 안 첫 보금자리 1977년 삼의원 개관

삼의원이 지어지던 시기, 교정의 풍경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 삼의원이 개관하던 1977년엔 화성교가 함께 지어졌고, 평화의 전당도 공사 중이었다고 하니까요. 삼의원이 학교 입구에 자리 잡으면서 교정엔 한층 활기가 더해졌으리라 상상해봅니다. 아버지가 머무르실 때에도 이미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은 건물이었겠지만, 유일한 기숙사였던 이곳에 들어오려면 무척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삼의원의 침대 틀에는 2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방마다 네 명의 학생들이 이야기로 밤을 지새운 흔적도 여기에 함께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막역한 친구로 지내는 지기도 이곳에서 만나셨지요. 지방에서 올라와 모든 것이 낯설던 그때에 다른 지방의 친구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룸메이트와 처음 어울리셨던 때의 일화, 방 꾸미기 경연에서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방을 청소하셨다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기숙사 입구 탁구대에서 아버지와 매주 탁구 실력을 겨루셨다던 매점 아저씨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학업에 필요한 비용과 공간이 모두 간절했던 시절. 삼의원은 아버지의 벗을 만나는 장인 동시에 든든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기숙사에 들어와 짐을 챙기고 낡은 침대에 누워봅니다. 침대 옆에서 전기냄비로 요리를 해주곤 했다던 중국 유학생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기숙사 내에는 취사가 가능하지 않아 그 냄비를 물려받기 전까진 어쩔 수 없이 기숙사 내 식당을 이용하셨다고요. 삼의원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던 그 전기냄비를 얼떨결에 선물 받은 뒤, 조교님의 눈을 피해 요리 실력을 길러 오신 탓일까요. 아버지의 냄비 요리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소박한 낭만이 담겨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의 음식 대신 야식을 주문해 체력단련실 창문으로 몰래 음식을 받았다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자정 이후 굳게 닫힌 기숙사 정문에 굴하지 않고 창문 틈으로 음식을 받았을 그 모습이 상상되어서요. 아버지는 기숙사 식당 밥이 더 맛있었더라면 음식 배달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담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의원 자치회가 진행하는 축제인 서헌제가 진행됐다. (사진=세화원 제공)

하지만 사생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고, 축제 때에는 축제의 장이 되어줬던 그 식당마저 이제는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최근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어학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삼의 서헌제 만남과 축제의 공간

아버지께선 영어도 같은 방의 외국인 친구에게 배우셨다고 했지요? 각 방에 한 명쯤 꼭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을 찾아 시간을 보내셨다는 아버지의 경험은 저도 꼭 한 번 따라 해 보고 싶습니다. 벽과 층으로 각 방이 분리되어 있지만 삼의원 안에서는 국적과 경계가 허물어진다 하셨죠. 옆방, 그리고 그 옆방까지 만화책을 돌려 읽고 함께 간식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각지에서 경희를 찾아온 학생들이 머물렀다고 하니, 아마도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세상 이야기는 그때 얻어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기획하셨다는 작은 축제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축제는 후배들 사이에서도 서헌제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다고 해요. 시험 기간이 모두 끝난 후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 축제는 식당에서 열리는데, 물풍선 던지기와 같은 소소한 게임은 물론 작은 주점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서헌제 기간에만 음주가 허용되었다고 하니 그 시끌벅적했을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삼의원을 나설 때 서헌제를 기념하여 나눠준 수건을 얼마 전에도 찾으셨지요. 그만큼 서헌제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기숙사로만 알고 계셨던 삼의원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단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1977년 지금의 제2법학관 자리에 세워진 삼의원은 1991년 정경대학 뒤편의 새로운 건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아있던 이전의 건물은 체육대학 학생들이 머무는 숙소가 되었고요. 새로운 삼의원에는 고시를 준비하던 백 명 정도의 학생들과 기존의 삼의원 사생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지요.

삼의원 이름에는 경희의 포부가 담겨있다. (사진=한진석 기자)

아버지께서 대학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곳은 바로 이 두 번째 삼의원입니다. 이후 처음 삼의원 현판을 달았던 법학관 인근의 건물은 철거되었고, 현재의 삼의원이 그 현판을 이어받아 국내외 학생들의 쉴 곳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삼의원을 떠나셔야 했다는 시기도 아마 그로부터 8년 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쯤 안전을 위해 반년 간의 공사가 이뤄졌다고 하니까요. 공사 뒤에도 아버지를 비롯한 친구들이 금방 삼의원의 빈자리를 채웠다는 사실을 듣고 보니, 삼의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따뜻함이 어떤 의미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삼의원은 오는 2학기부터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사진=한진석 기자)

바래지 않을 삼의원의 역사와 의미

"三儀園(삼의원)", 한문으로 쓰인 현판 앞에서 풀이해주신 뜻을 복기해봅니다. 삼의(三儀)는 삼원(三園)을 뜻하는 천·지·인을 뜻하며, 이를 물체에 비유해 삼의를 점·선·면이라고 하시면서요. 물체가 점·선·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듯 천·지·인은 우주의 근본이라는 뜻을 지녔다는 뜻이겠지요. 경희의 역사가 담긴 〈경희 50년〉에는 "우주의 지배자, 지도자 중의 지도자를 길러내겠다는 경희의 포부가 담긴 이름"이라고 그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공사와 변천을 거치면서도 그 이름만은 지켜온 이유가 여기 있나 봅니다.

천 원 한 장과 동전 몇 개로 사생들의 배를 채워주었고, 다른 기숙사와 비교해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잠들 공간을 내어주던 이곳. 삼의원이라는 이름은 사라져도 이름에 담긴 포부와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문혁신창업센터'라는 새 이름이 달릴 예정이라니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창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뿐입니다. 학교와 마을 사이에 자리 잡은 삼의원의 위치를 제대로 살릴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이제 삼의원이 지키고 있던 작은 골목길은 우리학교가 이웃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여 탁구를 치던 휴게 공간은 경희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임 장소, 공유 사무실, 그리고 스튜디오로 꾸며집니다. 그 아래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선다고 해요.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공부하고 잠들던 그 방도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입주해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빈자리를 다시 채워질 올여름, 학생들의 상상과 도전은 어떤 모습일지 벌써 궁금해요. 결국 교정의 모든 공간은 학생들의 자리라는 당신의 말씀을 곱씹어보자면, 아, 사실 삼의원은 언제나 우리의 보금자리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본 기사는 국어국문학과 안승범 교수, 03학번 최달슬지 동문, 20학번 홍소빈 동문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삼의원 기숙사 아름다운 시작들이 붐비던 곳

안 승 범
국어국문학과 교수

도시의 모든 시계가 울리기 시작하네. 시간이 너를 속이지 않게 하라. 오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시간이여. (중략) 늦은 저녁, 떠나간 연인들이 있고 시계가 울렸고 깊은 강물이 흘러갔다.

-W. H. 오든, 「어느 날 저녁, 밖에 나갔을 때」 중

예상은 했지만 서울은 거대한 도시였다. 스무 살에 홀로 상경해 처음 대면한 높은 빌딩들은 위압적이었고, 한강은 크고 넓었다. 삼의원은 서울에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누일 첫 번째 정처였다. 그곳에서 만 3년을 살았다. 리모델링 문제로 떠나 있어야 했던 잠깐을 제외하면 대학 생활 전부를 삼의원에서 보냈다. 서툴게 첫 연애를 하던 나, 도무지 풀리지 않는 몇몇 관계에 좌절하던 나를 삼의원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곳은 내가 홀로 삶을 경영하는 연습을 하던 시절, 내 모든 '시작'들이 궁리되던 곳이었다.

삼의원이 이문혁신창업센터로 바뀐다는 소식에 사사로운 추억의 편린들을 두서없이 적어 본다. 벌써 희미해진 기억 너머로 몇 가지 추억이 떠오른다. 1990년대 학교 주변엔 도서·만화·비디오 대여점이 여럿 있었다. 남학생 하나가 만화책 전질을 빌리면 그 책들은 삼의원의 여러 방을 돌고 돌았다. 몇 번은 반납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날권이 사라지는 일도 간혹 있었던 것 같다. 삼의원 입구에 존재하던 휴게실의 풍경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탁구대 몇 대와 낡은 TV, 소파가 있었다. 남녀 학생이 같이 쓰던 곳이어서 TV 채널 주도권 싸움이 빈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세리가 LPGA에서,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면서부터는 신새벽부터 TV 앞을 차지하려는 이들도 꽤 있었다. 탁구 치는 소리와 TV에서 나는 소리는 끝내 조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상황을 크게 불평하는 이가 많았던 것 같진 않다.

학생식당에서 1500원, 17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던 때였다. 삼의원 식권은 그보다도 훨씬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늦잠을 자거나 다른 이유로 식사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 생활비가 크게 절약되진 않았을 것이다. 삼의원에도 열람실이 있었다. 여느 열람실처럼 평소에는 무척 한가한 편이었지만 시험 기간이면 기숙사 외부 학생들까지 몰래 들어와 이내 만석이 되었던 것 같다. 다소 희미한 기억이기에 확신은 없지만 삼의원 맨 윗 층은 고시생들에게 할애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곳을 배회하던 형, 누나들 중 일부는 '대학의 낭만'과는 거리가 매우 먼, 세계의 냉정한 맨얼굴을 체험시켜주곤 했다.

4인 1실 삼의원에선 외국인 유학생과 한 방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시절 방을 같이 쓴 중국, 영국, 일본 친구들도 생각난다. 중국 친구에게서는 대륙의 기질이라고 여겨지는 특유의 호탕함이 있었다. 일본 친구, 영국 친구는 각각 두 살, 한 살 형이었는데 일본 친구는 온화하고 수줍었다는 기억과 함께 '내 것'과 '네 것'에 관한 계산이 정확했다는 인상이 있다. 여자 친구가 자주 바뀌던 영국 친구와는 PC방에서 축구 게임을 자주 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던 '베컴'을 '베르캄프'로 긴 시간 오인했었다.

쓰고 보니 어떤 정보는 윤색되거나 변색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든다. 삼의원으로 모이던 그때의 사람들은 떠났고, 익숙했던 풍경은 저만치 멀어졌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어떤 풍경은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마음 안에 머문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한 가지 진실만은 뚜렷하다. 그 무렵 삼의원에서 품었던 몇몇 각오와 다짐 중 일부는 지금도 습관 속에 살아있다. 삼의원이 그러했듯 새로 탄생할 창업센터에서도 누군가의 아름다운 시작이 잘 준비되길, 누군가의 기적 같은 다짐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길 기도한다.